

스크린 너머로 이어지는 영화와 관객의 대화

광주극장, 19일부터 윤가은·문성경·유운성 추천작 선배

GIFT, 18~21일 독립영화워크숍 41주년 기획전 운영

영화인이 직접 고른 작품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와 독립영화의 첫 마음을 되짚는 기획전이 광주 극장에서 잇따라 열린다.

광주극장은 영화인 초청 상영 프로그램을, 광주 독립영화관(GIFT)은 41년간 이어진 독립영화 제작 워크숍의 결과물을 다시 스크린으로 불러오는 기획전을 선보이는 것.

먼저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영화인 초청 프로그램 '시네마 다이어리, 해피아워'를 진행한다.

'시네마 다이어리, 해피아워'는 영화인이 추천한 작품을 상영한 뒤 관객과 함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해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과 정성일 영화평론가 등이 추천한 작품을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첫 번째 해피아워의 주인공은 영화 '세계의 주인'을 연출한 윤가은 감독이다.

윤 감독은 최근 양성평등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경험하는 콘텐츠 페스티벌 '백멜데이 2026'에서 백멜리언 감독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는 19일 오후 7시에는 윤가은 감독이 추천한 디안 퀴리스 감독의 '박하향 소다수'가 상영된다. 이 작품은 사춘기 소녀들의 일상과 복잡한 내면, 1960년대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를 섬세하게 담아냈다.

상영 후에는 김희정 감독의 진행으로 윤가은 감독과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2일 오후 7시에는 문성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

그레머가 추천한 사무엘 풀러 감독의 '마전'이 관객을 만난다.

인종차별이 학습되고 대물림되는 과정을 동물 스타일로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이후 반인종주의 영화로 재평가됐다.

23일 오후 3시에는 유운성 영화평론가가 추천한 리트와 가탁 감독의 '구름에 가린 별'이 상영된다.

벙골 분할로 인한 상실과 이주의 상처를 한 여성에 강요된 희생과 책임에 주목해 그려낸 작품으로, 가탁 감독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상영 후에는 시네토크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운영하는 광주독립영화관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독립영화워크숍 41주년 기획전 '처음처럼, 모두가 함께'를 선보인다.

독립영화워크숍은 1985년 '작은영화워크숍'으로 출발해 1991년 현재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어받았다.

지원금에 기대기보다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독립영화 생태계를 세우고자 했으며, 영화를 한 사람의 연출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의 힘으로 완성하는 '공동 작업'의 가치를 지켜왔다.

1기 수료생 33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500명이 워크숍을 거쳤다. 류승완·한준희 감독을 비롯한 수료생들은 영화와 방송을 아우르는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워크숍 참여자들이 남긴 단편영화들을 다시 스크린 위로 불러오는 자리다.



상영은 모두 다섯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가족과 성장을 담은 극영화부터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워크숍 입문·중급과정 실습작,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신작까지 41년의 시간과 변화한 제작 환경을 함께 아우른다.

18일 오전 11시 '단편영화' 섹션에서는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수습작업을 했던 김관홍 잠수사의 이야기를 담은 박종필 감독의 '잠수사'를 비롯해 문성준 감독의 '기억의 손길', 박규택 감독의 '기억부림'이 스크린을 채운다.

같은 날 오후 3시 '단편영화1' 섹션에서는 '가을이 여름에게', '돼지와 셰익스피어', '마음에 들다', '물 이야기', '아지랑이'가 스크린에 오른다.

오후 5시에는 라운테이بل '공동 작업'으로서의 영화 : 영화 제작 워크숍의 오늘'이 열린다.

남희섭 독립영화협의회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제도 바깥에서 함께 영화를 만들고 배우는 일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한다.

19일 오후 3시20분에는 입문과정 실습작을 묶은 '단편영화3', 20일 오후 3시에는 중급과정 실습

작을 소개하는 '단편영화4'가 각각 상영된다.

21일 오후 1시 '단편영화5'에서는 '위성소녀', '염', '영원의 약속', '웅이 이야기', '잔소리'가 차례로 펼쳐진다.

광주극장 프로그램의 관람료와 상영 시간표는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독립영화관 기획전은 전 작품 무료로 상영되며, 자세한 정보는 GIFT광주독립영화관 인스타그램과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AI 예술·그림책·금화 예술’ 한곳에…광양 전시 다채

광양문화예술회관·전남미술관·포스코미술관 휴식 제공

문화유산·고향 풍경 예술여행 주제 “자연 속 휴식 만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서 기록사진, 세계 현대미술, AI 예술, 그림책, 금화 예술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전시가 펼쳐지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문화예술회관과 전남미술관, 포스코미술관, 섬진강작은미술관, 반창고갤러리까지 도시 곳곳에서 각기 다른 주제의 전시가 이어지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기록사진과 현대미술, AI 예술, 그림책, 공예와 금화 예술을 하루 일정으로 둘러볼 수 있어 아울러 광양은 문화와 관광을 함께 즐기는 예술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광양시는 무더위를 피해 전시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문화예술여행지로 광양을 추천했다. 전시장을 돌아 이어지는 여정은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사색은 물론 색다른 문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31일까지 백암 이정모 사진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 ‘이정모의 시선-사라진 앞에서, 사진으로 남기다’가 열린다.

광양 출신 백암 이정모(1926~2001)는 대한민국의 기록사진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여순사건과 한국전쟁, 정부 수립기와 산업화 과정 등 격동의 현대사를 카메라에 담았으며, 사라져가는 문화유산과 고향의 풍경,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며 시대의 기억을 남겼다. 이번 전시는 약 6만점에 달하는 필름 아카이브 가운데 엄선한 140여점의 작품을 격동의 현장, 사진이



이정모 사진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 전경.

머문 풍경, 사라지는 것들, 고향 그리고 일상 등 네 개의 주제로 소개한다. 기록사진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 현대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다. 전시 기간 중 휴관 없이 운영된다.

광양읍에 위치한 전남미술관에서는 국제교류전 ‘두 도시, 하나의 불꽃’, AI 특별전 ‘데이터 사피엔스’, ‘백남준·존 케이지·요제프 보이스’ 특별전 등 다양한 기획전이 이어지고 있다.

‘두 도시, 하나의 불꽃’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국제교류전으로, 한국과 프랑스 청년 예술가들의 협업 작품을 통해 예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시는 11월 8일까지 열린다.

‘데이터 사피엔스’는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품은 전남의 미래 비전을 배경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새로운 관계를 탐구하는 전시다. 관람객들은 예술을 통해 AI 시대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전시는 10월 18일까지 이어진다.

이와 함께 백남준, 존 케이지, 요제프 보이스의 예술적 교감과 플럭서스 정신을 조명하는 특

별전도 내년 2월 28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남미술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대체공휴일인 8월 17일은 정상 운영하고 다음 날인 18일 휴관한다.

Park1538 광양 내 포스코미술관에서는 오는 9월 5일까지 순회전 ‘한 장의 세계: 그림책 100년의 여행’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그림책을 단순한 아동용 도서가 아닌 시각예술의 한 장르로 조명하며 19세기 근대 삽화부터 현대 그래픽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에 걸친 그림책의 변천과 예술적 가치를 소개한다. 케이트 그린어웨이, 윌트 크레인, 랜돌프 칼데콧 등 영국 그림책 황금기를 이끈 거장들의 초판본을 비롯해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실험정신을 담은 회귀본, 브루노 무나리와 폴 랜드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특히 초판본 특유의 종이 질감과 인쇄 방식, 제본 구조를 직접 살펴볼 수 있어 그림책이 지닌 예술성과 시대적 미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전시 마지막 공간에는 그림책을 직접 펼쳐볼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더한다.

포스코미술관은 매주 일요일 정기 휴관하며, 광복절인 8월 15일과 대체공휴일인 17일에도 휴관한다.

전시마다 주제와 장르는 다르지만 기록사진과 현대미술, AI 예술, 그림책, 공예와 금화 예술까지 하나의 도시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관람객의 차별화된 매력이다. 무더위를 피해 전시장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광양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kjin@gwangnam.co.kr



관람객들이 전남미술관에서 전시를 감상하고 있다.

가상 행성 ‘네넨볼라’, 영광의 일상과 만나다

‘…누오 글로리아’ 내달 18일까지

전남대 문진원 연구 창작 프로젝트

생성형 AI·애니·미디어아트 선행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미디어아트로 기술과 자연, 인간과 공동체의 미래를 탐색하는 전시가 영광에서 열린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따르면 '2026 네넨볼라 누오 글로리아(Nedenbyula Nuo Gloria)' 전시가 오는 9월 18일까지 영광문화원 2층 갤러리와 영광군 서로마를 카페서로에서 진행 된다.

이번 전시는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의 '스튜디오 네넨볼라'가 기획한 연구 기반 창작 프로젝트다. '기술과 생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다음 세계'를 주제로 생성형 AI와 데이터,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해 기술과 인간, 자연,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풀어낸다.

예술감독은 변현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다. 전남대학교 문화학과 박사과정 김강민·송종호·송호인·윤은지·차상혁·하혜원과 문화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정지용·이정우·박예은·박하연 등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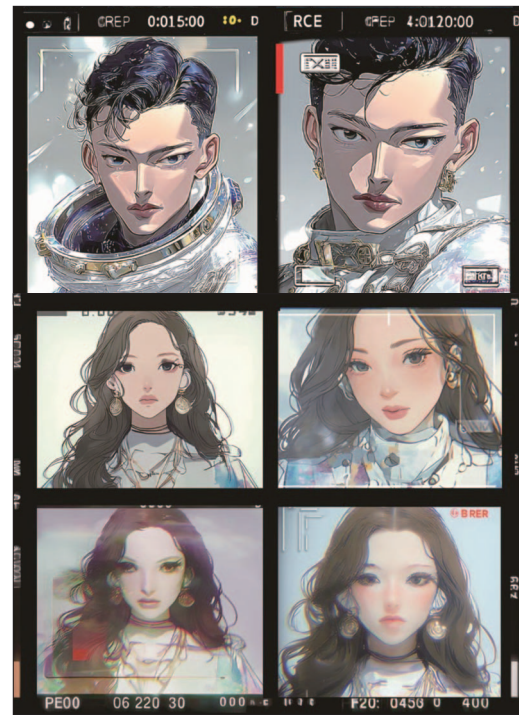
전시의 중심에 있는 '네넨볼라'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 중인 SF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는 가상의 행성이다.

하지만 이번 전시는 가상의 미래세계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시가 열리는 영광문화원과 서로마를을 사람과 사물, 청년과 어린이,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만나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생태계로 바라보고, 가상의 행성 네넨볼라와 영광의 실제 공간을 연결한다.

특히 AI 기술 자체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 AI 전시와 차별화를 꾀했다.

AI를 인간이나 자연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감각과 관계를 드러내는 매개로 바라보고, AI Art와 창작 생태계, 포스트휴먼 감성 등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를 예술적 상상력과 결합했다.

관람객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네넨볼라 탐사자'가 돼 전시의 세계관을 직접



네넨볼라 애니메이션의 주요 장면.

경험하게 된다.

전시장에서는 네넨볼라 애니메이션의 주요 장면과 주제곡을 비롯해 전 세계 AI Art 데이터를 시각화한 작품, 데이터 기반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대본과 주요 장면을 담은 대형 프린트 등을 만날 수 있다.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인 '나만의 미래 씨앗 그리기'도 운영된다. 미래의 세계와 공존의 모습을 직접 상상하고 표현해보는 체험이다.

이번 전시는 대학이나 전문 전시장에 머물던 연구·창작 콘텐츠를 지역의 일상적인 문화공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남도노을여행 머무르다 물드는 하루' 전남 소도시(1권역) 연계 관광콘텐츠 실험 공모를 계기로 전남대학교와 폐교를 재생한 복합문화공간 서로마를이 연계하고, 지역 문화공간인 영광문화원이 전시공간을 제공하면서 대학의 연구·창작 콘텐츠와 지역의 문화공간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유류공간과 문화공간을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결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일상 가까이에서 미디어아트와 AI 기반 창작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